

# 나주혁신도시 복합센터 벌써 '파열음'

### 투융자 심사 앞두고 광주시 국비 분할지원 요청

### 광주시 "공동혁신도시 인테 협의 없이 사업 추진"

### 전남도 "투융자 심사 완료 후 해도 늦지 않아"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시설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시·도간 갈등 재연으로 초기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1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31일 종료된 가운데 오는 10월 마지막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복합혁신센터는 건립에는 총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국비지원액은 190억원이다. 나머지 300억원은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일정 비율대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전국 10곳에 들어설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지원 규모를 혁신도시 1곳당 100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원래 2개로 나눠진 혁신도시를 시·도가 합의해

하나로 통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0억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하고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오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이 센터는 부지 9085㎡, 연면적 2만116.8㎡,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수영장·공동육아나눔터·문화교실·동아리룸·청년창업지원 시설 등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어 나갈 핵심 컨트롤타워인 '혁신도시발전재단'도 입주하게 된다.

문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전남도(나주시)와 광주시의 갈등이 채 봉합도 되기 전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또 다시 양시·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갈등 표면화는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6월22일 국토부와 행안부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 광주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각 발송하면서 촉발했다.

광주시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가 빛가람복합혁신센터의 경우, 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다는 점에서 시·도가 사업시행자와 시행방법을 함께 논의해 결정' 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10일 국토부를 방문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혁신도시 컨트롤타워인 '복합혁신센터'에 대해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3일에도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투입하기로 한 시비 50억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6월22일 국토부와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전남도(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문제 삼아 정부가 지원키로 확정된 국비 190억원을 각각 시·도로 95억원씩 나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국토부가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비 190억원은 전남도를 경유해

사업시행자인 나주시로 지원되면 전액 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가 제기한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나주시) 관계자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거나, 개별적인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공문에서 밝힌 전남도(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센터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남도가 이미 광주시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센터건립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도 전남도에 지난달 3일 혁신공문을 통해 '센터 건립은 양시·도가 협의한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 건립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까지 들여다보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센터 건립 사업 소요예산이 확정된다"며 "8월말 또는 9월초에 광주시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있고, 투융자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을 정해두고 늦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가 우려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일자리정보 공유마당 일자리공유카페 개설

광주 동구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 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일자리공유카페'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동구청 홈페이지와 동구두드림 앱을 통해 선보이는 '일자리공유카페'는 광주 전체 일자리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공유카페는 동구와 타 지역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채용 등 관련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청별로 공고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정보를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구직 편의성을 높였다.

## 서구, 꾸러기들의 여름숲체험 인기 만점

광주 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꾸러기들의 여름숲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주제로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을 만나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숲체험을 위해 서구는 지난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모집인원 수보다 많은 신청자의 접수로 8월 2일까지 1기를 운영하고, 8월 19일부터 ~ 8월 23일까지 2기를 추가 운영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풍양생태학습공원을 둘러보는 '숲산책'과 '우리숲 나무도감 만들기', '나비커리미 만들기' 등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 진행되는 실내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남구, 폭염취약 홀로노인 61일 돌봄 프로젝트

광주 남구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돌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에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34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남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구 노인복지관을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행기관으로 지정, 두 기관이 힘을 합쳐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북구, 하반기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 북구가 하반기 전통음식 강좌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남도의 맛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2019년 하반기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15주 과정이며 △발효·저장음식 △자연주의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무형문화재 내림음식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발효·저장음식은 고추장·된장, 장아찌, 김치류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며 자연주의음식은 연잎밥, 대생이국, 버섯전골 등 건강요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향토음식은 계절식으로 닭계장 갈비찜, 토란탕 등 지역 토속음식과 한식 요리 과정이며 떡·한과 과정은 꽃송편, 떡케이크, 절편 등 떡류와 한과류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무형문화재 내림음식은 평소 배우보지 못한 너비아니, 전복집, 짐장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광산구, 일본 수출규제 지역기업과 함께 극복

광주 광산구가 8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중소기업 현황 실태조사와 대응 지원안 운영을 골자로 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광산구는 2일부터 2,1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로 구 전체 중소기업 90%에 달한다. 실태조사는 설문지 발송, 기업 방문 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여기에 광산구는 산단 별 협의회와 하남산단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정확한 피해를 예상해 대응할 계획이다.

광산구와 기업추진센터가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반'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가 들어간다.

임형택 기자

### 기/자/수/첩

## 해명 아닌 해명(?)

한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얽힌 고발사건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쾌지수가 끓어오르는 수은주 만류가 높아지고 있다.

고발인은 이종철 씨로 전 순천시 민의 신문 기자이고 피고발인은 허석 씨로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다.

신문사 재직시절 있었던 문제로 고발이 있기까지 이 씨는 그동안 순천시위원을 역임했고 허 씨는 순천시장으로 선출돼 재직중이다.

이처럼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보니 지역사회의 이목 또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씨가 며칠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술한 의혹과 또다른 고발사건에 대한 해명성 회견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 마디로 자신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 씨가 허 시장을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혐의로 고발해 이제 그 시비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우고 하를 막론하고 비위가 있다면 이는 단죄돼야 마땅하다. 법의 심판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 허물이 더 중할 때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연고자 했던 성취감이 반감되기 마련이다.

못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공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단죄를 할지라도 순천시민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지 않는 선에서, 선과 악을 가리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진흙탕 싸움은 아니어야 한다.

한 때나마 공인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는 순천시민들의 심정을 한 순간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순천=김승호 기자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선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전남도교육청이 1일 밝혔다.

## 전남통일열차학교, 백두산 정상 올랐다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선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중국의 서파산문을 통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백두산 천지는 학생들의 벅찬 감동에 보답하듯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여기저기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요한 학생은 "상상만하던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풍경을 보고 감격했다"며 "하지만 중국을 통해 멀리 돌아와야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하얼빈에 도착해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찾는 일정을 시작했으며, 단동~집안~백두산~용정~연길로 이어지는 중국 구간 대장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 110여 명은 단동으로 이동해 압록강 북·중 접경지대와 고구려유적 탐방, 백두산천지 등성, 용정 항일독립운동유적 탐방을 한 데 이어 연길시 고등학생과 교류활동을 벌인다.

김정환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지정법원 2019년 단 3347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송 현 기 (750725-1641713)  
최 후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강사1길 5, 2층(방림동)

위 망 승현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2일

공 고 인 : 김정숙,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금곡길 25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7월 26일  
공고기간 : 2019. 8. 2 ~ 2019. 10. 2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시민정 시책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시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연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의 전라남도노사민정조정제도실운영위원회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